지가 무슨 성춘향이라고

옥복연/성상담, 성교육전문가

중3때 처음으로 사귄 남자랑 관계를 가졌고 낙태 수술도 했는데, 그 남자는 저를 떠나버렸어요. 그 후 사귀는 남자들이 제가 맘에 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 저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 할 때는 약간 걱정도 되었지만 한번 하고나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하게 되더라구요. 이미 해버렸으니까 순결한 몸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린거죠. 그러나 고2 올라와서는 한번도 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관계를 하고나면 미련없이 떠나버리는 남자들.. 그 후로는 남자들이 원하면 애무에서 그치고 그이상은 허용하지 않았고, 남자들은 그런 저에게 "지가 무슨 성춘향이라고..."하면서 경멸을 보내며 저를 걸레 취급 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아닌 아닌데..."라며 현실에서 도망을 쳤고,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만나기 싫었어요. 사랑하면 몸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는 남자들의 말에 속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후회해도 늦었다는건 알지만 지난 시간들이 너무 허망하고, 앞날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님은 참으로 진솔한 여학생이군요. 어린 나이에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님이 성관계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상대를 너무 사랑해서?"

"상대가 간절하게 원하니까?"

"아니면 성관계가 즐거워서?"

혹은 "성관계를 하면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드니까?"

사춘기 시절에는 누구나 영화같은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여름의 뙤약볕같이 이글거리던 그 사랑이 깨어지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홀로 남은 자의 허탈함이란 참으로 견디기 힘들어, 현실을 원망하면서 한없이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자신을 아무 남자에게 내던지기도 하고, 그것이 남성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는 서로에게 상처와 고통만을 줄 뿐이라는 뒤늦은 뉘우침은, ○○님에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함과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제는 ○○님도 자신을 추스리고 자신의 앞날을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랍니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아무리 괴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이나 인간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면 자신에게 오히려 상처가 더 쌓이게 되지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것을 후회할 수는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랍니다.

한 때의 실수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한 일인가요?

이제는 과거를 접어두고 앞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 보세요. 그리하여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나가기 바랍니다.